

은행 대출까지도 수도권 집중 심화

국회예산처 분석... 10년새 70%대로 급팽창

광주·전남 고작 3%... 금융서비스 전국 최약

은행 대출 거래의 70% 가까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반면 광주·전남은 3%대에 머무르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실물경제활동에서 금융서비스 이용 정도를 알려주는 금융연관비율(대출/지역내총생산)도 광주·전남지역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금융서비스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지역은행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6일 전국 은행의 대출과 예금 거래액을 분석해 발

표한 '지역별 예금 및 대출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여년새 수도권 3개 지역(서울·인천·경기) 은행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출의 경우 수도권 비중은 2001년 말 64.7%에서 2012년말 68.3%로 늘었다. 특히 경기지역 은행의 비중은 이 기간 15.6%에서 21.6%로 급증했다.

반면, 광주는 같은 기간 2.3%에서 1.9%, 전남은 2.5%에서 1.4%로 각각 크게 줄었다. 2012년말 기준 1%대 이하 지역은 울산(1.6%), 충북(1.4%), 강원(1.1%), 제주(0.6%) 등이었다.

예산정책처는 "지방보다 수도권에

서 큰 폭으로 경제성장이 이뤄져 자금 흐름도 활발해진 것"이라며 "2001~2011년 전국 경제성장률은 4.2%였으나 수도권은 4.6%였다. 경기는 7.0%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말 기준 금융연관비율 역시 서울이 1.842로 다른 지역을 압도했으며 대구(1.199), 부산(1.190), 인천(1.190), 경기(0.957), 대전(0.870)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는 0.829로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 중 최저치였으며 전남은 0.257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광주·전남지역 실물경제와 금융과 관계가 밀접하지 않고 금융서비스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예금의 경우 2012년말 기준으로 거래액의 71.0%가 수도권에 몰렸다. 이는 2001년 68.3%에 비해 2.7%포인트

올라간 수치로, 서울의 예금비중은 2001년 51.5%에서 2012년 54.1%로 크게 늘었다.

반면 광주 비중은 2.3%에서 1.7%로 대폭 줄었다. 전남은 1.4%에서 1.6%로 소폭 늘었다.

예산정책처는 "금융자금이 수도권에 지역을 집중 유입되고 있다"며 "지방 소재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계속된다면 안전성을 선호하는 자금이 서울로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광주지역 금융기관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금융기관이 없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며 "정부는 우리은행 매각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 섬 주민 조만간 원격 진료 받는다

창조경제 실현 위한 서비스업 발전방안 이달말 발표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 등을 이용해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원격 진료' 방식이 조만간 시범 시행돼 섬이 많은 전남지역 의료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내용 등을 담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업 발전방안'을 이르면 이달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환자가 원격으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격진료를 전국 단위로 시행한다는 목표로 법 개정 및 시범 시행 등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원격진료는 환자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가 의료 측정기기로 생정보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의사에게 전달해주고 의사는 이를 토대로 원격지에서 환자를 보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진료를 시범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의료법과 약사법, 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원격진료나 IT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경제자유구역을 건강관리서비스, 원격진료, IT·의료·관광이 결합한 헬스케어 시장 창출을 위한 시험무대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오영기자 kroh@연합뉴스



'현충일 순국선열 향안 묵념' 6일 오전 광주공원 추모탑에서 열린 제58회 현충일 기념식 참석자들이 영령들에게 묵념을 하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야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포럼 본격 활동

오늘 창립총회... 초대회장에 정동채 전 장관

(사)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포럼(이하 지원포럼)이 7일 광주시 남구 광주CGI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 이 포럼은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로, 초대

회장으로는 정동채(사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내정됐다.

광주시는 6일 "2015년 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상시 활동하는 지원포럼이 필요해 기존 지원포럼을 상설 기구화 했다"고 밝혔다. 2011년 출범한 기

존 지원포럼에서는 광주시 공무원, 문화전문가, 학계인사 등 100여명이 활동해왔다.

사단법인으로 출범하는 지원포럼은 이사회 일원

15명을 포함해 1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4개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을 두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

츠 등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지원포럼 창립총회에서는 초대 회장과 임원 선임, 정관제정, 사업계획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 포럼은 이달말까지 사무국 설립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원포럼이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기여하도록 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자 perfoot@



전남대-獨 프라운호퍼 IPA, 첨단로봇연구 손잡아

오늘 공동연구센터 개소식

전남대 로봇연구소와 독일 프라운호퍼 IPA가 첨단 신개념 로봇 연구를 위해 손을 잡았다.

전남대학교(총장 지병문)는 7일 대학 코스모스에서 전남대 로봇연구소(소장 박종오)와 독일 프라운호퍼 IPA(소장 알렉산더 페를) 간 공동연구센터 개소식 및 국제 케이블로봇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공동연구센터 개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사업으로 전남대 로봇연구소가 첨단 미래 원

천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2020년까지 세계 상위 5위권의 로봇전문연구기관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전남대 공동연구센터에는 독일에서 파견한 3명의 연구원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달에는 전남대 연구진 2명이 생산·자동화 연구소인 독일 프라운호퍼 IPA에 파견됐다.

공동연구센터 개소식에 발맞춰 이날 오후에는 '국제 케이블로봇 포럼'이 열린다.

케이블로봇은 무거운 구동장비나 관절없이 여러 개의 케이블로 작동하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작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어 테마파크

용로봇, 그린로봇, 우주로봇 등 여러 분야에 활용 가능한 21세기형 창조기술이다.

독일 프라운호퍼는 독일 내 60개의 산하 연구소를 포함해 2만 2000여명의 인력과 19억 유로(한화 2조7000억원 상당)에 달하는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프라운호퍼 IPA는 유럽연합 최대의 생산 및 자동화연구소로 응용로봇분야 선진기술과 우수한 연구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성공적인 공동연구 성과달성은 물론 국내 기업의 예로기술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공동주택 최대 3개층까지 수직 증축 허용

정부,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 발표

앞으로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되고 종전 가구수의 최대 15%까지 가구수도 늘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국회 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방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심재철(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일 수직증축 허용에 관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 범위를 최대 3개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저층일수록 상대적으로 하중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

려해 시행령을 개정해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 15층 이상은 최대 3개층까지로 제한한다.

현재는 수평·별동 증축만 가능하며 수직증축은 필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1개층 증축을 허용했다. 정부는 하중 등 구조안전을 고려해 앞으로는 필로티도 증축 층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축물시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기초 등 상태파악이 어려운만큼 수직증축을 불허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한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구수 증가는 현

행 10%에서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다만 최근 중소형 주택 선호 현상을 감안해 가구당 증축면적은 현행(85㎡ 이하) 기준면적의 40% 이내, 85㎡ 초과하는 30% 이내)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특별시·광역시·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리모델링 가구수 증가에 따른 도시과밀 등을 억제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리모델링 연한인 지은지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400만 가구에 이른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광주전남혁신도시 공동주택용지(B13블럭) 분양 공고

1. 공급대상토지

사업지구	공급용도	필지 수	면적 (㎡)	공급예정가격 (원)	공급 방법	신청예약금 (원)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공동주택 용지	1	66,486	25,171,260,000	추첨	500,000,000

* 필지 세부내역은 토지청약시스템 (http://buy.lh.or.kr)에 게시한 공급대상토지 세부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

3. 공급일정 및 장소

구분	공급 일정	장소/방법
신청접수 및 신청예약금 납부	2013.06.24(월) 09:00~16:00	LH 토지청약시스템 (신청건별 입금계좌부여)
추첨	2013.06.25(화) 10:00	LH 토지청약시스템
당첨자 발표	2013.06.25(화) 11:00	LH 토지청약시스템
계약 체결	2013.06.28(금) 10:00~16:00	LH 광주전남혁신도시사업단

4. 대금납부방법 : 3년 분할납부(유이자)
- 계약시 10%, 잔대금은 6개월 단위로 6회 균등분할 납부

* 신청공고 내용은 기본사항에 대해서만 기재하였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청약시스템 (http://buy.lh.or.kr)에 게시된 매각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내전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전남혁신도시사업단(061-330-5523)

2013. 06. 07

LH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사람을 찾습니다!

정환아!
할머니가 애타게 기다린다.
속히 집으로 돌아오거라

성명 : 강정환
나이 : 28세

현재,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4학년

위 사람을 본적이거나 행적을 아시는 분은 급히 연락바랍니다. 후사 하겠습니니다.

연락처 | 062)222-4476
062)232-2991~2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시트시공 2. 단열베이스시트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시공 4. 시공 후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차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2중단열방수, 천정결로방지, 절연방식시공, 내구성탁월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절감, 난방비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속모형 탈렌트 이영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